

한빛원전 온배수 해양환경·어업피해 문제 ‘도마 위’

발전 6사, 연간 611억t 방류...원전 배출량 절반 넘어
피해 보상금도 ‘눈덩이’...“배출수 관리·폐열 재활용”

전남광주지역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해양환경 및 어업피해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영광 한빛원전 주변에서는 온배수 영향 범위와 어업피해 보상 대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온 만큼 배출수 관리와 폐열 재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발

전 6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발전 6사의 온배수 배출량은 연간 611억1000만t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원전 5개 본부의 배출량은 320억4000만t으로 전체의 52.4%를 차지했다. 원전에서 배출된 온배수의 평균 출구 수온은 25.4도로, 유입 해수 평균 수온인 16도보다 9.5도 높았다.

발전소별 입·출구 수온 차는 월성원전이 10.9도로 가장 컸으며, 새울원전 9.8도, 한빛원전 9.1도, 한울원전 8.9도, 고리원전 8.6도 순이었다. 전남지역에 위치한 한빛원전에서도 온배수 배출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과 어업피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20년 전남 함평지역 어민들은 한빛원전에서 약 30km 떨어진 해역에서도 온배수로 인한 생태계 변화와 어획량 감소가 발생했다며 피해 조사와 보상을 요구했다. 반면 한빛원전 측은 기존 조사에서 피해 범위를 20km까지 한정해 보상을 마쳤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전남도와 영광군 등은 온배수 영향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광역 해양조사를 추진했다. 온배수 문제는 배출수의 수온뿐 아니라 해양환경 변화와 어업피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상과 관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발전소 주변 해역의 수온 변화와 생태계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온배수 배출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에는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발전 6사

가 지급한 온배수 어업피해 보상금은 총 21건, 2311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수원이 8건, 1688억원을 지급해 전체 보상금의 약 73%를 차지했다. 이어 중부발전 439억1000만원, 서부발전 88억6000만원, 동서발전 52억9000만원, 남동발전 43억2000만원 순이었다. 반면 대규모 온배수가 배출되는 데 비해 폐열 재활용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발전사별 재활용 실적도 차이를 보여 온배수 활용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온배수의 열에너지를 양식장과 스마트 팜, 산업시설 등에 활용하면 버려지는 에

너지를 줄이는 동시에 지역 산업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별 경제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하고, 안정적인 활용처를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김정호 위원장은 “연간 611억t의 발전 온배수가 바다로 방류되고 있으며, 특히 원전의 경우 유입 해수보다 평균 9도 이상 높은 온도로 배출되고 있다”며 “해양생태계 영향과 어업피해 갈등을 줄이기 위해 기후부와 해수부, 발전 6사가 함께 온배수의 해양영향 관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아반떼 N 모노크롬’ 공개
“화려함 덜고 디테일 채워”

현대차는 ‘아반떼 N 모노크롬’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모노크롬은 ‘한 가지 색상 또는 한 계열의 색조만을 사용해 표현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름처럼 아반떼 N 모노크롬은 기존의 다양하고 화려한 컬러를 덜어내고 최대한 단색으로 내·외장을 마감해 몰입감을 높였다. 아반떼 N이 모터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고성능 헤리티지를 절제된 형태로 표현, 운전자가 역동성과 운전의 즐거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명명했다.

블랙, 퍼포먼스 블루 두 가지 단색 모델로 각각 출시되는 아반떼 N 모노크롬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전용 단조 휠, 단색의 전·후면 범퍼 및 브레이크 캘리퍼, 스티어링 휠 버튼 등이 적용돼 단순함을 극대화했다.

특히 스티어링 휠 등 내부에 알칸타라 소재를, 사이드 미러 등 일부 외장 부품에 카본 소재를 새롭게 적용해 한 차원 높은 고성능 감성을 더했다.

아반떼 N 모노크롬은 29일 국내를 시작으로 향후 글로벌 국가에서도 판매될 계획이다.

N은 오는 31일과 11월 1일 이들 동안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현대 N 페스티벌에 아반떼 N 모노크롬 실물을 전시할 예정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LG U+ ‘119 메모리얼런’ 성료 19일 엘지유플러스(LG U+)가 소방청과 함께 개최한 ‘U+119 메모리얼런 2026’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대회에는 119명의 소방관들이 참여해 순직 소방관들을 추모한다는 의미를 담아 배번표 자리에 순직 소방관의 성명, 순직일자를 대신 착용했다. 사진제공 = LG U+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확대...최대 20억원 지원

중기부, 내달 16일까지 공모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지원 규모가 최대 20억원으로 확대되고, 이상 기후에 대비한 전통시장 안전관리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월 16일까지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

성화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등 5개 사업으로 진행된다. 문화관광형시장장은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외부 방문객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원 기간과 규모를 기존 2년간 최대 10억원에서 3년간 최대 20억원으로 확대했다. 시장경영지원사업은 상인

교육과 경영 자문을 비롯해 시장매니저·배송매니저 등 인력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규모는 400곳 내외다.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는 화재와 수해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시설 설치와 개·보수를 지원한다. 특히 폭설·태풍에 대비한 결빙 취약 구간 개선과 낙하물 안전관리 등을 지원 항목에 추가했다. 이밖에도 지역상품전시회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우수 상품을 전시·홍보하고 판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곳 내외를 선정한다. 전국 우수시장박람회는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우수 사례를 알리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곳을 지원한다. 윤용성 기자

전남광주 납품대금 불공정거래 살핀다

중기부, 수탁·위탁기업 1만5000개사 대상 실태조사

전남광주지역 중소기업의납품대금 지급 지연과 부당 감액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가 대상이며, 2025년 한 해 동안 이뤄진 거래를 살펴본다. 주요 조사 항목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와 약정서 발급 여부, 납품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과 결정 여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이다.

특히 중기부는 이번 조사부터 대상 거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해당 연도 상반기 거래를 중심으로 조사했지만, 유통·식품·건설 등 하반기에 거래가 집중되는 업종의 거래가 조사에서 누락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조사는 모두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위탁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 내역 등 거래 현황

과 관련 설문을 조사한다. 이어 해당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약정서 발급과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과정에서 수탁기업의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할 경우에는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위탁기업에는 개선 요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수탁·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남광주지역 기업을 위한 설명회는 20일 오후 2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과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문에 포함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개최 전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건강검진

매일 체크✓행복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60415-중-211304호